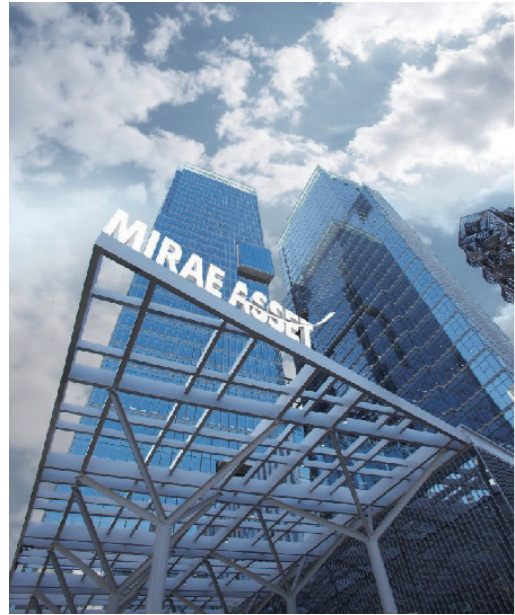


'투자 바구니' 뭘 담을까... 운용사 ETF '각양각색'

400조원을 바라보는 규모로 성장한 ETF(상장 지수펀드)가 '국민 재테크'가 됐다. 투자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선별한 대표 ETF 상품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미래에셋 운용, 반도체·차 등 韓 간판기업 집중



동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핵심 종목에 투자하는 'TIGER 코리아TOP10' ETF를 제시했다.

2018년 상장한 TIGER 코리아TOP10 ETF는 반도체, 금융, 방산, 자동차, AI 등 대한민국 증시를 이끄는 간판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순자산 규모는 2조 원을 웃돈다.

대형 우량주 집중 전략으로 종목 수를 10개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코스피200 등 광범위한 지수형 ETF와 달리, 불필요한 종목목을 배제하고 유동 시가총액이 가장 큰 10개 기업에 포트폴리오를 집중한다.

높은 업종 분산 효과와 함께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다

양한 업종의 국내 1등 기업들을 고르게 편입해 특정 업종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코스피를 이끄는 핵심 성과를 담아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코리아TOP10 ETF의 수익률(2026년 3월 9일 기준)은 3개월 42.7%, 6개월 109.4%, 1년 165.3%, 상장 이후 231.74%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기반 ETF 수익률을 웃도는 수치다. 총보수는 연 0.15%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실적 가시성이 높고 글로벌 경쟁력이 검증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방산·금융 섹터의 이익 체력이 강화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들의 실적 모멘텀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ntimes.com

불확실한 시장 환경일수록 펀더멘털이 검증된 초대형 주 중심 접근이 방어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내 유

삼성 운용, 커비드콜로 변동장세 '정면 돌파'



전략을 통한 안정적인 월 분배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인 'KODEX 200타겟위클리커비드콜'을 제시했다.

해당 ETF는 변동성 장세에 적합한 상품이다. 특히 탄력적인 옵션 매도 전략을 활용해 주가 상승 시에도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상승 흐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승장 참여와 안정적인 월 분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가 강점이다.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주단위 콜옵션 매도를 통해 연간 약 15% 수준의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추구한다. 여기에 코스피200 종목 투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약 2% 수준의 배당수익을 더해 연 17%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한다.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 평균 약 1.42%의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계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고액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다만 연 2% 수준의 배당금 수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수익률도 상위권이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비드콜 ETF는 1년 수익률 113.27%를 기록하며 국내 커비드콜 ETF 가운데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올해 역시 연초 이후 수익률 30.60%를 기록하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총보수는 연 0.39%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200타겟위클리커비드콜을 통해 시장 상승 참여, 옵션 프리미엄 수익 비과세, 월 분배 전략을 하나의 ETF로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의진 기자 qkd0412@ntimes.com

신한 운용, 최신 배당주 트렌드 반영 '고배당 전략'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감액 배당 기업 세제 혜택,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 등 최근 국내 배당 정책 흐름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한 ETF가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고배당 우량주 30종목에 투자하는 'SOL 코리아고배당' ETF를 제시했다. 2025년 9월 상장된 상품으로 기초지수는 FnGuide 코리아고배당 지수(PR)다.

특히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세제 변화가 맞물리면서 단순 배당 투자에서 한 단계 진화한 전략형 배당 ETF가 주목받고 있다. SOL 코리아고배당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설계된 대표적인 고배당 전략 ETF로, 실질 배당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한다.

핵심 투자 전략은 배당 정책 변화 수혜 기업 선별이다. 배당 규모뿐 아니라 배당 방식과 주주환원 정책까지 고려해 종목들을 구성한



다. 금융지주, 증권사, 고배당 제조기업 등 국내 대표 주주환원 기업들이 주요 편입 대상이다. 배당 수익뿐 아니라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까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OL 코리아고배당 ETF의 기간 수익률(2026년 3월 10일 기준)은 3개월 19.57%, 연초 이후 19.90%다.

순자산 규모는 5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분배금은 월 1회(매월 중순) 지급된다. 총보수는 연

0.15%다. 월 배당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물론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장기 투자 계좌 활용에도 적합한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신한자산운용 측은 "국내 배당 정책 변화와 주주환원 강화 흐름을 구조적으로 반영해 설계된 상품으로, 배당 중심 전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ntimes.com

KB 운용, 반도체 대장주·채권 '두 마리 토끼' 공략

연금계좌를 활용한 투자 수단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ETF를 눈여겨볼 만하다. KB자산운용은 'RISE 삼성전자 SK하이닉스채권혼합50 ETF'를 제시했다.

해당 ETF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핵심 수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하면서 채권을 함께 편입해 안정성을 높인 상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5%씩 총 50% 비중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채권으로 구성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중장기 메모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이 ETF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면서도 단일 종목 투자 대비 리스크를 분산한 구조를 갖췄다.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상품으로 연금 자산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ETF'는 퇴직연금(DC·IRP) 규정상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현행 제도상 퇴직연금 계좌는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

되지만, 채권 혼합형으로 인정되는 해당 ETF는 계좌 내 100% 편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계좌뿐 아니라 일반 주식 계좌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또한 총 보수는 연 0.01%(1bp) 수준의 매우 낮은 비용 구조를 갖추고 있어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동일 유형 상품 대비 비용 경쟁력이 뛰어난 점도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방의진 기자 qkd0412@ntimes.com

한투 운용,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우등생 분산투자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의 세부 4개 카테고리(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의 네 가지 카테고리 시가총액 1위 종목을 각 20% 비중으로 편입한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를 제시했다.

2022년 11월 상장한 ETF로, 기초지수는 Solactive Global Semiconductor TOP4 Plus Index다.

한국과 미국에 상장된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가운데 핵심 4대 기업에 고루 투자한다. 시스템 반도체는 엔비디아, 메모리 반도체는 SK하이닉스, 파운드리에는 TSMC, 반도체 장비는 ASML이 해당된다.

AI 수혜를 기반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ETF다. 글로벌 분산 효과와 독점 기업 집중이라는 이중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순자산 규모도 1조 105억 원(2026년 3월 10일 기준)으로 '1조 클럽' 대형 ETF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의 기간 수익률(10일 종가 기준)은 6개월 77.01%, 1년 137.61%, 3년 404.72%, 상장 이후 477.40%에 달한다. 총보수는 연 0.45%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는 2022년 ETF 브랜드를 ACE로 리뉴얼한 이후 출시한 첫 번째 상품"이라며 "시장의 중심이 글로벌 우량주,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 핵심 기업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각 분야 1위 기업에 집중해 장기 성장 가능성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ntimes.com

하나 운용, 美 우주 산업 투자 '정조준'



우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관련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투자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하나자산운용은 '1Q 미국 우주항공테크 ETF'를 제시했다. 하나자산운용의 '1Q 미국우주항공테크 ETF'는 성장세를 키워 가는 우주 산업에 맞춰 미국 우주항공 테마에 집중 투자하는 국내 ETF 가운데 하나다. 민간 기업 중

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주 산업 성장 흐름에 투자할 수 있는 테마형 상품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ETF는 우주 산업 성장이라는 구조적 흐름에 투자할 수 있게 우주항공 산업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특정 기업에 집중하기보다 관련 산업 전반에 분산 투자해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편입 종목을 보면 로켓랩과 조비

에비에이션을 각각 약 16% 비중으로 최대 편입하고 있다. 나머지 약 68%는 팔란티어, GE에어로스페이스, AST 스페이스모바일, 아처 에비에이션 등 관련 핵심 기업에 투자한다. 특히 로켓랩의 편입 비중은 국내 상장된 모든 ETF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스페이스X(SpaceX)가 상장할 경우 해당 ETF에 최대 비중으로 즉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총보수는 연 0.49%다.

하나운용은 민간 기업들의 우주 산업 참여 확대와 위성 기반 데이터 산업 성장 역시 관련 기업들의 장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골든 돔(Golden Dome)'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와 NASA의 유인 달 궤도 비행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Artemis II)' 역시 우주 산업 성장을 가속화할 요인으로 꼽힌다.

방의진 기자 qkd0412@ntimes.com